

에 의 업계 소식

IBM, RAID시스템 지원 절전형 서버 발표

미국 IBM이 RAID(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를 지원하는 새로운 저전력 컴퓨터 서버를 지난 2월 14일 선보였다.

향상된 디스크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새 서버는 IBM의 기존 'p610시리즈'에 포함된다.

IBM의 한 관계자는 "새 제품은 고객 및 영업 관리 애플리케이션 용으로 RAID 시스템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RAID 기반 컴퓨터는 복수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하나의 저장 기기로 처리, 유사시 복구능력이 높고 처리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이 회사는 새 제품이 타사의 제품과는 달리 RAID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없으므로 전력소모를 줄여준다고 강조했다.

컴팩-이오나, 웹서비스 마케팅 제휴

컴팩컴퓨터가 웹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로나테크놀로지와 웹서비스 사업에서 제휴를 맺었다.

컴팩은 이번 협력으로 자사의 300명 직원에게 로나의 웹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교육시키고 또 로나와 함께 웹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마케팅한다.

웹서비스는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간에 정보교환을 통해 구매·재고정리 등의 기업업무가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IT시장의 총아

로 부상하고 있다.

로나의 샌디 부사장은 시장조사회사 기가인포메이션그룹의 조사를 인용해 "웹서비스 시장 규모가 2005년께 11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컴팩과의 제휴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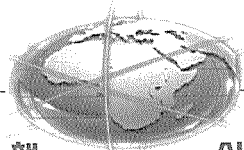
미 IT기업 "그리드" 상용화 박차

IBM·마이크로소프트(MS)·선 마이크로시스템스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그동안 연구 프로젝트로만 머물러있었던 그리드(Grid) 컴퓨팅의 상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IT 대기업들은 지난 18일부터 3일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글로벌 그리드 포럼'(GGF)에서 웹서비스와 그리드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고 있어 그리드의 상업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리드 컴퓨팅이란 지리적으로 분산된 고성능 컴퓨터·대용량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DB)·첨단장비 등을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해 공유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전 세계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마치 가상의 슈퍼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뜻한다.

일례로 밤에는 쓰지 않는 미국의 한 대형 은행의 컴퓨팅 자원을 그리드에 연결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소프트웨어기업은 자사의 정보 시스템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드 컴퓨팅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우선 기업고객들이 자사의 서버 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그리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선



해외 업계 소식

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와 법률이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쉽사리 자신들의 서버를 공유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당장 그리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부족하다. 더불어 DB 소프트웨어 등 대다수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아직 그리드와 호환되지 않는다

스·컴팩·실리콘그래픽스·시스코·시만텍·네트워크 어소시에이츠·인터넷 시큐리티 시스템스·바인드뷰·파운드스톤·가드트(Guardent)·앳스테이크 등이다. 이 업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RSA 콘퍼런스에서 회동을 갖고 권위있는 네트워크 관리자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MS 등 주요 IT업체, SW보안결함 발표시기 표준화기구 설립 합의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주요 IT업체들이 소프트웨어의 보안결함 발견시 일반대중에 발표하는 시기를 표준화하기 위해 인터넷보안기구(OIC: Organization for Internet Security)를 지난 2월 22일 공동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결함 발표 시기를 둘러싸고 그간 진행돼 온 소프트웨어업계와 보안전문가 집단 사이의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MS 등 업계에서는 보안전문가들이 소프트웨어 결함을 발견했을 때 해당업체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토록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일반대중에 보안결함을 알려 해커들의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해왔다.

하지만 보안전문가들은 업계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표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며 사용자는 보안결함을 알지 못한 채 해킹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업계의 주장에 반발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OIC 설립에 참여키로 한 업체는 MS 외에 IBM·오라클·홀렛팩카드·선마이크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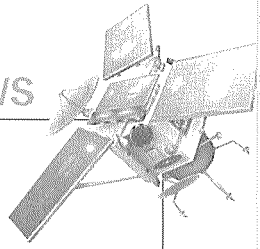
영 일렉트릭 “스마트인스톨” 개발

영국의 ‘일렉트릭 포켓 리미티드’는 소비자가 휴대폰이나 팜 계열 핸드헬드 PC를 구입할 때 별도로 PC에 접속할 필요 없이 즉석에서 무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인스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회사 대변인 케빈 도엘은 “모바일 제품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구성을 자동화하는 스마트인스톨을 개발,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때 즉석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무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품의 등장은 모바일 제품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는 일단 컴퓨터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단말기를 PC 프로그램과 동일화시키는 작업을 거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설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 프로그램은 모바일 단말기 사용자가 단말기에 SD/MMC 카드(Secure digital/multimedia card)를 삽입하면 자동적으로 시작되며, 사용자



가 제공되는 설명서를 읽으면서 단말기 화면에 나타난 휴대폰과 팜 계열 핸드헬드 PC 목록에서 해당 기종을 선택하면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구성 데이터 등이 자동으로 단말기에 설치된다. 또한 이메일과 웹 브라우징, 무선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WAP), 포토 메시징 및 기타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영어·불어·독일어 등의 다양한 버전으로 이용가능하다.

일렉트릭 포켓측은 이 제품을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팜 OS 플랫폼 개발자 연례 모임인 팜 소스(PalmSource) 행사에서 선보여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밖에도 JPEG 사진파일 형태로 이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Pixer)과 이메일을 받을 경우 즉석에서 보낸 사람의 전화번호를 파악, 수신자의 휴대폰에 띄워주는 새로운 이메일 프로그램 등을 함께 선보였다

MPEG-4보다 10배 빠른 영상. 음성압축기술 개발

핀란드의 벤처 업체인 오플라요(Oplayo)가 기존 MPEG-4보다 10배 이상 데이터 전달 속도가 빠른 영상 및 음성 압축기술 MVQ(Motion Vector Quantization)를 개발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MVQ는 수신 측면에서 기존 기술보다 훨씬 적은 프로세싱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디오 디코딩을 손쉽게 할 수 있어 PDA와 휴대폰 등 모바일 무선 제품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리얼네트워크의 플러그 인 및 플레이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20KB 자바 애플릿을 사용해 비디오 패키지를 전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 안토니 베스트리넨 사장은 “이 기술은 사전 설치가 필요가 없고 비디오 버퍼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MPEG-4에 비해 전송속도가 10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포켓 PC와 GPRS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의 휴대폰 업체 노키아의 벤처 파트너인 오플라요는 프랑스 칸느에서 열리고 있는 3GSM 행사에서 이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NTT, 히타치, 마쓰시타 등 차세대 전자상거래 시스템 공동 개발

일본전신전화(NTT)와 히타치, 마쓰시타 전기산업 등 3개 업체는 초고속 광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차세대 전자상거래 시스템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NTT 관계자는 “3개 회사가 ‘히카리 커머스 서비스(Hikari Commerce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전자 상거래 시스템의 공동 개발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는 4월까지 프로토콜 규격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환경 개선에 관심있는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특정한 상품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기존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NTT의 정보 공유 플랫폼과 히타치의 네트워크 서버 기술, 마쓰시타의 네트워크 응용제품 기술 등을 합쳐 개발된다. 특히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20장의 화상 이미지를 단 1초



해외 업계 소식

만에 전송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고객들에게 동시에 더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벤처,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

미국의 한 벤처 업체가 차세대 리튬이온 2차 전지 기술을 개발했다. 텍사스 오스틴에 근거를 둔 2차전지 개발회사인 밸런스테크놀러지(www.valence-tech.com)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훨씬 강하고 안전하며, 가격도 저렴한 리튬이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새피온(Saphion) 리튬이온 기술'을 개발했다.

리튬이온 전지는 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과 PDA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2차전지로 빠른 속도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지 내부에 보호회로를 설치해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 회사 조 라모릭스(Joe Lamoreux) 부사장은 "이 기술은 현재 리튬이온 전지의 전극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코발트를 새로운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리튬 이온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제품 적용 범위도 크게 확장시킨 차세대 기술"이라며 "내년 초에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술을 적용한 리튬이온 전지는 특히 폭발의 위험성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리튬이온 전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던 보호회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품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 기술은 리튬이온 전지를 대용량 팩(Pack)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범위를 휴대폰 등 일부 휴대용 전자제품에서 전기 자전거와 수중 수송수단 등 다양한 제품과 산업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 회사측은 이 제품이 환경오염 물질인 코발트를 새로운 안전한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환경 친화성을 크게 높였다고 점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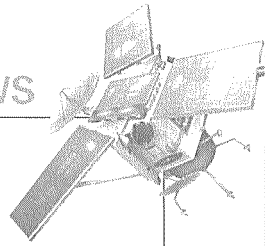
IBM, 세계 최고속 IC 개발

IBM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직접회로(IC)를 개발했다. IBM은 실리콘 게르마늄 칩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초당 1100억번의 사이클로 작동하는 110Gb IC를 만들어냈다. 이같은 성능은 1초에 280만쪽의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속도다.

이 칩은 광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스위치나 라우터 등과 같은 데이터 통신 장비는 물론 군수용 장비와 같은 다른 고성능 제품에도 응용될 수 있다. IBM은 이번에 개발한 칩을 연말에 상용화할 예정이다.

IBM이 이번 칩 개발에 이용한 실리콘 게르마늄은 지금까지 칩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실리콘과는 달리 스위칭이 빠른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르마늄 층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IBM 이외에도 커넥션트시스템스 등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실리콘 게르마늄 기반의 반도체를 개발중이며 커넥션트는 지난해 12월 200Gb



로 작동하는 칩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칩은 역시 IBM이 실리콘 게르마늄으로 만든 80GHz IC였다

수명 1.7배 긴 노트북 개발

일본의 히타치제작소가 세계 최초로 수냉(水冷)식 노트북PC를 개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판에 나선다. 50~60ml의 냉각용액을 분당 10ml씩 순환시켜 반도체칩의 열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공냉식 PC보다 냉각성능이 뛰어난 데다 소음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소비전력·무게도 기존의 PC와 똑같은데 비해 수명은 1.7배나 길어졌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히타치는 수냉식 PC 기술을 해외업체에도 제공해 이 분야의 국제표준화에 나설 계획이다.

소니, 자회사 '아이와' 완전 흡수

소니는 경영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자회사 아이와를 오는 10월부터 완전 자회사로 전환키로 했다. 소니는 이를 위해 현재 61.4%인 아이와 출자비율을 100%로 늘리고 도쿄증시 1부 상장 폐지와 인력 감축, 해외생산 및 판매거점의 통합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아이와를 모회사에 편입, 한국과 중국의 가전제품 공세에 대항할 수 있는 저가 브랜드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니 측은 설명했다.

소니의 이데이 노부유키 회장은 아이와 브랜드를 포기하는 방안은 고려해 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이와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자회사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NEC·마쓰시타, 차세대 모바일폰용 새SW 플랫폼 공개

미 정부의 웹사이트가 1년 6개월 만에 개편됐다. 딕 체니 미 부통령은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한 새로운 미 정부 웹사이트(일명 FirstGov)를 공개했다. 검색 기능만을 강조했던 과거 사이트와 달리 새로 구축된 사이트에는 3500만개의 미 정부기관 웹페이지가 연결돼 있다. 또 각 주 및 지방정부 사이트와도 연동,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미국민은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 과세에서부터 캠프장 예약까지 모든 절차를 한번에 수행할 수 있다. 또 구직이나 학자금 대출 신청, 운전면허증 갱신, 심지어 우표구매도 가능하다. 기업가들은 각종 법규 및 특허·상표권도 살펴볼 수 있으며 각종 계약조건도 확인할 수 있다.

체니 미부통령은 "과거 사이트는 검색에 주력, 접근이 쉽지 않고 키워드 검색결과도 복잡했지만 새 사이트는 방문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단지 세번의 클릭만으로 찾을 수 있다"고 자랑했다.

이번 사이트 업그레이드와 별도로 미 정부는 향후 2년내에 정부기관 전체를 포함하는 웹사이트를 구축, 온라인을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나설 계획이다.